

“죽도록 일했는데...” 동구 일용직 임금 체불 호소

SOCIETY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노동마을 우오수 분리공사 현장 노동자 14명 피해 4~5월분 5400만원 규모...건설사 “빠른 시일 지급”

광주 동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와 노동청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사름만 깊어지고 있다. 1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A 건설사는 공개 입찰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노동마을 일대 우오수 분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공사비 6억2211만원을 투입해 오수

관 1.1km를 신설하고 68가구에 대한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공정이다. A 건설사의 인력 요청을 받은 서구의 한 작업소개소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용직 노동자 수십여명을 투입했고, 지급된 임금은 1억4200여만원이다. 작업소개소는 지난 4월4일 A 건설사로 부터 2000만원, 4월23일 동구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6750만원을 받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 건설사가 작업소개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5월이 되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은 총 14명에 달했다. 체불액도 54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노동자들이 직접 A 건설사를 방문,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한 노동자는 “무더위를 버티며 죽도록 일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 미치겠다”면서 “다음 달이 추석인데 당장 말린 월세도 못 내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고 호소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동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동구 측은 그동안 공사계획서에

반영된 노무비에 맞춰 임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구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21일 7903만원, 6월20일 1억2220만원, 올해 4월22일 1억7945만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했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추가적인 노무비 지급은 어렵다는 게 동구의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건설사가 공사 감독관에게 노무비 지급을 신청한 뒤 지자체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며 “최근 임금 체불 소식을 인지하고 A 건설사에 정상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건설사는 임금 체불은 물론 해당 공사 준공일(6월6일) 미준수로 지

체자연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률은 95%이다. 이러한 임금 체불 상황이 계속되자 한 노동자가 지난 7월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광주노동청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간이대지급금 안내 또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임금 체불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설계변경(안)을 동구에 제출한 뒤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12	달빛	20:39
예보	18:46	달빛	09:55



광주	☀️	20~31
목포	☀️	22~31
여수	☀️	23~29
순천	☀️	21~31
구례	☀️	19~32
광주	☀️	20~31
임도	☀️	22~32
목신도	☀️	24~29
고흥	☀️	20~31
진도	☀️	21~30

목포	미물(고)	04:24 / 16:55
여수	쌀물(저)	09:32 / 21:54
	미물(고)	11:20 / 23:28
	쌀물(저)	04:54 / 17:17

전남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하위권 2.62%...고용부담금 9억9100만원 납부

전남대학교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2024년 12월 기준)은 2.62%로 경북대병원(2.22%)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041명이며, 장애인 고용인원은 191명이다.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등 3곳이 전부였다.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대병원(20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9억9100만원, 경북대병원 6억9600만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억4200만원에 달

했다. 지난해 62억2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4.05%다. 국립대병원이 소속된 기타 공공기관(총 230개 사업체)의 경우 고용률 3.84%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반면에 국립대병원 14곳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3곳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2024년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추석 앞두고 나주배 출하 한창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0일 전남 나주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선선하고 당도가 좋은 ‘천년배’를 나주배 선과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학교폭력 증가세...지능화 현상 우려

작년 광주 704명·전남 927명...최근 4년간 급증 초등생 성폭력·중고생 상해·폭행 등 비중 높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광주지역에서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212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1명, 2022년 405명, 2023년 599명, 2024년 70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2024년 기준)을 보면 초등학생은 성폭력(52.6%)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은 상해·폭행 등 신체적 폭력이 절반가량(45~47%)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2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생이 232명이었다. 소년범의 경우 지난해 2460명으로, 2023년(2838명)보다 13.3% 감소했다.

절도나 폭력·마약사범은 줄었으나, 성폭력과 도박 등 풍속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에도 411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306명)보다 105명이 많았다. 전남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학교폭력 가해자가 275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1명, 2022년 554명으로 줄다가 2023년 649명, 2024년 92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소년범은 2285명으로, 2023년(2540명)보다 10% 줄었다. 올 상반기에도 398명이 입건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학교 폭력 검거자는 2021년 1만1968명에서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5436명, 2024년 2만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00명이 늘어난 1만1023명이 입건돼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 새 3726명(62.1%)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7845건에서 2022년 4만3013건, 2023년 4만3629건, 2024년 4만9057건으로 3년 새 1만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출소 당일 술 취해 행인 폭행한 40대 영장

출소한 지 하루도 안 돼 만취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린 30대 남성이 구속 기보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은 10일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 혐의(폭행)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역살 등을 수차례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터미널에서 만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사건 당일 출소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범 기간,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그곳이 가려워서 그만...”

만년필 ○...광주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만진 20대 남성이 붙잡혀. 광주 북부경찰은 10일 공공장소에서 탈의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1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아. 인근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려워서 굶은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추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이신하 기자 goback@

DECK ROAD

예진 친환경 데크로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YEKUN, 주식회사 예진

I·B·O·W Prunus W3ALO

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T.031-943-6114 F.031-943-6698 E.yekun@yekun.com
디자인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8-16 2F T.02-324-1140 F.02-324-3270 E.yekun@yekun.com

www.yekun.com